

투데이칼럼

지역소멸을 늦추고 환경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소리 없는 기업유치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다. 전세계를 휩쓴 코로나19로 외자유치가 제한되면서 하나의 기업이라도 더 유치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로 젊은인구 유입을 만들고, 지역소멸을 늦추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현재 고창군에는 4곳의 농공단지에서 74개 업체가 운영되고 1000여명 이상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매년 납부하는 지방세는 약 12억원 정도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대금속과 같은 강소기업이 있으며, 북분자농공단지에는 염직식품이 약 400억원의 투자와 임직 14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재정확충을 위해 기업유치에 분전하고 있다. 비슷한 인근 지자체보다 예산은 많지만, 그런데도 여전히 2021년도 고창군은 일반예산 6930억원 대비 재정자립도는 7.75%로 미진하게 머물고 있다.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다. 마침내 고창에도 기회가 왔다.

풀밭으로 변해 수년간 지역민들의 마음을 애대했던 고창일반산업단지가 유치권이 해제돼 기업유치



조 정 호

고창군청 재무과장

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10년전 산단을 만들 당시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대한민국, 전라북도, 고창군의 산업지형이 변했다.

불이 꺼지지 않을 거라 했던 자동차와 조선, 기계·항공이 침체의 늪에 빠져있고, 인공지능과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급속도로 대체하고 있고 대체해 나가고 있다.

고창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했다. 한반도 농생명식품수도를 표방하는 고창군은 '식품 가공산업'에 눈을 돌렸다. '고창·담양 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를 직접 연결하는 남고창IC 바로 앞에 자리해 빠른 원료조달과 신선도가 중요한 식품산단으로는 최고의 입지 여건을 자랑한다.

전북 향토기업인 주)동우팜부테이블은 고창지역에 약 1500여원의

투자를 약속하며 650여명의 일자리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직접 고용 노루비, 물류비, 소모품 구입비 등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경제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만 연 63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식품제조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지역에 투자하고 입주하는 기업은 단순히 일자리만을 제공한다는 의미만을 갖지 않는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최고의 농특산품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성장잠재력을 끌어 올리고, 경제활성화 유지와 현재 33.78%의 초초고령화 시대의 고창에 젊은인구를 유입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식품산단은 필연적으로 다량의 물을 쓸 수밖에 없으며 발생하는 처리수는 환경적 기준치보다 더 강한 제한이하 배출과 환경기술적

으로 제거하지만 최소한 냄새는 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기업을 유치하면 동반되는 환경보전 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는 없는가.

반대와 찬성의 의견이 다르다고 마냥 평행선만 달려가진 안된다. 생각이 다르면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의견을 듣고, 전문가의 중재로 해결점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서로 풀어가야 한다.

지금은 환경과 경제를 동반으로 최우선시하는 시대다. 특히, 고창군은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천혜의 자연생태보전지역이다.

고창의 기업에서도 별도로 환경을 때어놓고 운영하고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불가능하면서 친환경적 관리와 과감한 투자, 운영 변화로 생각을 빨리 바꾸어 나가고 실천해야 한다.

기업이나 농수축산업도 더욱 적극적으로 강한 환경투자를 통한 환경보전으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해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고창을 우리 후손에 영원히 물려주기 위해 기업과 지역민과 행정 모두가 도출된 의견 일치로 현재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의무가 있다.

사설

재경 부안군향우회의 고향 사랑

재경 부안군향우회가 지난 1월 대규모 조직으로 공식 출범해 눈길을 끌었다. 향우회의 임원 및 집행부 간부는 무려 208명으로 구성됐다. 향우회 역사상 최대 '배터리 조직'이 된 셈이다.

집행부는 사무총장을 필두로 7명의 분야별 위원장과 6명의 사무처 간부, 51명의 부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공로가 많은 49명의 원로는 고문으로 추대됐다. 회원들은 친목 도모와 고향에 대한 봉사활동에 신명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하중대 향우회장은 "제25대 향우회 집행부를 구성하면서 재경 부안군 향우회를 반드시 중흥시키겠다는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며 "생거부안(生居扶安)의 명성을 되찾는데 향우회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향우회는 고향 사랑 실천에도 모범을 보였다. 올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의 이들에게 유기농 쌀 10kg들이 100포와 코로나 안심 심 한류 마스크케이스 600개를 전달했다.

유기농 쌀은 영양 성분이 검출되지 않고 자연 퇴비만을 사용해 생산한 쌀이다.

특히 부안에서 농사를 짓는 영농법인 대표가 직접 생산했다.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을 받은 마스크케이스는 자동으로 살균되는 기능이 있다.

향우회 마스크케이스를 마스크를 넣어두면 15분 내에 66%, 2시간 내에 99%의 살균 효과가 있다. 회원들은 최근 1년간 코로나19로 인해 고향의 어르신들이 무척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것이다.

타향에서 힘든 삶 속에서도 두한한 고향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매우 아름다운 일이다.

이는 나눔 정신을 계승하는 일이다. 특히 힘든 노년을 보내고 있는 소외된 고향 어르신들에게 은정을 전달해야 할 것이다.

고향은 항상 그리고 애뜻한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 어려움에 처할수록 더욱 따뜻한 고향이 웃음이 생각나는 법이다. 출향 인사들의 고향 사랑의 마음이 변함없이 전해지기를 바란다.

세계 평화종교인 연합의 의미와 과제

한국기독교성직자협의회(KCCLC)와 세계평화종교인연합(IAPD) 호남·제주 출범식이 지난 5일 리더스호텔에서 개최되어 관심을 모았다. 이날 행사는 전주평화연합(UPF) 호남·제주지부가 주최했다.

출범식에서는 '신통일한국 실현을 위한 종교인의 역할' 주제 강연도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종교인들이 앞장서 코로나19 위기와 한국 사회 병리현상 등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특히 지나친 집단 이기주의와 자기 종교 우월주의 등을 넘어 상호 존중과 화해 협력으로 신통일한국을 실현하는데 적극 활동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기독교성직자협의회는 2019년 10월 서울 롯데호텔에서 창설됐다.

이러 세계기독교성직자협의회(WCLC)는 같은 해 12월 미국 뉴욕에서 창설되었다. 교파와 교리를 넘어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협력해 나가는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앞서 세계평화종교인연합은 2017년 11월 창설된 후 2018년 2월 한국결성대회를 가졌다. 5개 지구별로 결성대회를 가지면서 종단과 종파 간 교류와 화합, 협력으로 신통일한국 실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초종교·초교파적 성직자 연합인 ACLC는 2000년 5월 미국 성직자 120명을 중심으로 창립됐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약 3천개 교회 6천명 이상의 성직자가 함께 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난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 확산으로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기상 이변은 이제 그 도를 넘었다. 갈수록 자연 앞에 얼마나 인간이 약한지를 실감하는 때이다.

세계 각국의 성직자들은 종단과 교파를 뛰어 넘어야 한다. 그리고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인류 한 가족의 세계를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인류 과제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가자시티 첫 여성 택시기사 "여성 손님만 태워요"



세계 여성의 날인 8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시티에서 택시 기사 나일라 이부주비(40)가 운전석에 앉아 있다. 나일라는 가자지구의 첫 여성 택시 운전자로 여성만을 수송하기 위해 작은 택시 사무실을 차렸다고 전했다.

독자제언

직진 우회전차로 차량에 '빵빵' 행위 말아야

며칠 전 직진 우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뒤 따르며 우회전 하려던 운전자가 전조등을 위 아래로 조작하면서 경음기를 계속 해서 울리는 상황을 목격하였다. 직진 우회전 차로는 보통 편도 2차로이상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 차로에 위치한다. 이는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에 가능한 차로를 말한다.

직진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직진을, 우회전 하고자하는 운전자는 우회전을 하는 등 진행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된다.

자신이 우회전 하려고 할 때 직진하려는 앞 차량이 대기하고 있을 때 경음기를 울리거나 전조등

을 조작하여 앞 차량이 좌측 차로로 이동하게 하는 행위는하지 말아야 한다.

직진 우회전 차로에서 뒤 차량이 반복적,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를 하면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의거하여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앞 차량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서 비켜주다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할 경우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횡단중인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발생시 10대 중과실 사고 책임을 지야함을 명심해야 한다.

/전근수 무주경찰서민원실장경감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